

삼성전자, IKK쇼에서 최첨단 에어컨 공개

"친환경 시스템 에어컨 앞세워 유럽 시장 본격 공략"

이승호 기자 | 2005/11/02 12:45 | 조회 2602

오늘의 인기 태그: 롯데 샤넬 워크아웃 현장검증 평택

태그란?



삼성전자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냉동공조 전문 전시회인 'IKK쇼'에 참가해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시스템 에어컨 신제품과 인버터 에어컨, 멀티 에어컨 등 32개 제품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에어컨 시장이 4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친환경 제품을 앞세워 2007년에 시스템 에어컨 매출을 에어컨 전체 매출의 40% 이상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정용 에어컨에서부터 멀티 에어컨, 상업용 에어컨까지 풀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특히 상업용 에어컨에는 IT기술을 접목해 생활가전과 IT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2006년형 시스템에어컨 'DVM PLUS II'는 실외기 4대를 조합해 48마력까지 구현한 모듈타입으로 기존 제품 대비 냉방성능은 20%, 공간효율은 45% 가량 높였다.

특히 이 제품은 유럽연합이 가전 제품에 천연냉매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응해 친환경 냉매인 R-410A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스크롤 방식을 적용, 독자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에어

컨 'DVM(Digital Variable Multi)'을 소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삼성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다수의 에어컨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DMS(Data Management System)'와 PC를 이용해 통합 제어할 수 있는 'S-net' 기술 등 최첨단 제어기술을 선보인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IKK는 냉동 공조 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회로 올해 1만2000평의 전시 규모에 7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문용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시스템 에어컨 시장이 4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친환경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2007년에는 시스템 에어컨 매출을 에어컨 전체 매출의 40% 이상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9.11때 1억으로 10억 번 고수의 파생 비법

'품생품사' 샤넬, 고객보다 자존심 먼저

아이폰 쓸까? 노키아폰 쓸까?

[사진]영업종료 앞두고 분주한 샤넬

[사진]설 연휴 마친 코스피 '밝게 웃다'

[AD]강남굿모닝치과 즉시 임플란트특허

[AD]정성을 다하는 줄리엣성형외과

[AD]주식대출핍스론 연리9% 제도권안전대..

[AD]웅진코웨이 무료체험단모집!!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자세히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 기사에 대한 URL :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5110211595408203&type=1>